

“취약계층에 희망을”... ‘광주형일거리’ 활성화 위한 협약

광주사회혁신플랫폼 등 지역 11개 기관·단체 참여

‘App-하다’ 활용 재능 수요-공급자 발굴 매칭 사업

광주사회혁신플랫폼과 ㈜퍼니브라운, 한전KDN 등 광주지역 11개 기관·단체가 6일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 광주형일거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형일거리 사업은 근거리 일거리 플랫폼인 ‘App-하다’를 활용, 경제활동 취약계층인 경력단절자, 사회초년생, 장애인 등 경제활동에 의지는 있지만 경제활동을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IT솔루션을 활용해 재능 수요와 공급자를 발굴해 매칭해 주는 사업이다.

참여 기관·단체는 광주사회혁신플랫폼, 광주재능기부센터, 한전KDN㈜,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첨단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민센터, 일곡마을배움청, 까망이협동조합, 문산마을공동체,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퍼니브라운 등 총 11곳이다.

각 기관과 단체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하며 지역 내 다양한 재능 수요 기관과 시민들을 매칭해줄 예정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퍼니브라운 최현호 대표는 “광주형일거리 프로젝트는 단기 계

약형태의 일거리 활동으로 요즘처럼 경제·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 꼭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경제활동 취약계층에게 수익활동 모델로 자리잡고,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한편 광주사회혁신플랫폼은 주민들 주도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협업기구로, 2018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2019년 15건, 2020년 20여 건의 지역의제를 발굴해 협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형일거리 사업은 2020년 지역실행의제 중 하나로, 지역 내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희기자



담양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 주간행사 운영

치매안심마을 돌봄서비스, 치매인식 개선 비대면 캠페인 등 진행

담양군치매안심센터는 ‘제13회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해 지난 달 14일부터 29일까지를 치매극복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온라인 행사 참석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 등을 진행했으며, 치매안심마을(금성면 석현리, 고서면 고읍리) 2개소의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필품 및 방역물품을 직접 방문해 제공했으며 대상자 건강 체크 및 코로나19 수칙, 치매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또한 담양읍 5일 시장과 죽녹원, 메타프로방스 등에서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진

행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주민들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피켓을 들고 가두 캠페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담양군 종합복지관 등 관련기관 105개소에 비대면 방식으로 치매안심센터 사업 홍보를 진행하고,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적 공감대를 조성했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모든 군민들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치매예방과 관리, 돌봄 등을 포함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순천시매안심센터 ‘기억상자키트’ 사업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치매예방사업...7회분 우편 전달

순천시는 코로나19 감염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비대면 치매예방사업을 위해 ‘기억상자키트’ 사업을 추진한다.

순천시는 인지활동자극이 필요한 치매 고위험군을 선정해 학습지, 색칠하기, 인

지향상교구, 마음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7회분의 ‘기억상자키트’를 우편으로 전달한다.

치매 전문인력이 전화상으로 활동지 관련 학습지도와 지남력 훈련을 진행하고, 상담 진행 중 생활상의 문제나 주거환경

점검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선별하여 방문해 심리상담 및 안위를 점검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기억상자키트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상황 속에서 고위험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약화와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치매안심센터(061-749-8888)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서구, ‘상쾌한 목욕서비스 뽀드득’ 운영

장애인 보건위생 증진위해

광주 서구가 내년 1월까지 장애인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상쾌한 목욕서비스 뽀드득’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행복하고 잘사는 서구 통합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가정 내 목욕시설이 열악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건강과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쾌(爽快)한 목욕서비스 뽀드득’이란 명칭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백운요양병원(병원장 김진우), ㈜광주순환도로투자, 광주순환주식회사 (대표이영훈) 후

원으로 추진된다.

광주서구장애인 복지관 수행으로 진행되는 목욕 서비스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은 천수온천에서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은 화정사우나에서 진행된다.

이번 장애인목욕서비스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위생문제 해결 및 혈액순환을 돕고자 기획됐으며, 장애인의 청결한 위생관리와 건강한 신체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 하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통한 안전한 목욕서비스 진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보성군, 임신부 건강

관리비 20만 원 지원

보성군은 코로나19 고위험 감염 취약계층인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부 1인당 20만 원의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의 일환인 이번 지원금은 지난 달 24일 기준 보성 거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신부 건강관리비는 아동특별 돌봄지원금(미취학아동 정부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안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보성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덕순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스카우터 한수원